

로마서의 논지(論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롬 1: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리(眞理)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敬虔)치 앎음과 온갖 불의(不義)

(롬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앎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롬 1:23) 찍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찍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롬 1: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不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震怒)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롬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롬 2: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율법(律法)으로도
인간의 불의(不義)는 해결할 수 없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모두 심판(審判)의 대상이다.

(롬 2: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롬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롬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롬 2: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롬 3:3)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롬 3: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롬 3: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롬 3: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롬 3: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롬 3: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롬 3: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롬 3: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롬 3: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律法)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誤解)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 외에 복음(福音)
곧 하나님의 의(義) 그리스도의 의(義)가 필요하다.

(롬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行爲)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할례(割禮)를 받기 전이었다.

(롬 4: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롬 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롬 4: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롬 4: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롬 4: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和平)을 누린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누리고 있다)

(롬 5:1, NASB)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망의 근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롬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감사한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이다.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고의적(故意的)로 죄에 거할 수는 없다.

(롬 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롬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롬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은
자신의 지체를 의(義)의 병기(兵器)로 하나님께 드린다.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죄의 잔재(殘滓)들

성도는 신분상(身分上)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예수께 속한 자이다.

(롬 7: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롬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따라서 성도는 예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罪)의 세력(勢力)이 한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 속에 『또 하나의 나』가 있다.

(롬 7: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롬 7: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롬 7: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롬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롬 7: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롬 7: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롬 7: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롬 7: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롬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로마서 제7장의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죄의 실체인 나』를 지칭(指稱)하는 수사학적(修辭學的)인 대명사(代名詞)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

(롬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定罪)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聖靈)』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롬 8: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롬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는 성령(聖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된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苦難)에 기꺼이 참여한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苦難) 속에서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도록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합하여) 선을 이룬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롬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유대인의 구원 문제(제9-11장)

선택(選擇)과 유기(遺棄)의 교리

선택과 유기는 창세(創世) 전에 이미 작정된 것이다.

(롬 9: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롬 9: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롬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느 누구도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主權)이다.

(롬 9:20) 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택한 백성』은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릇이다.

(롬 9: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롬 9: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
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롬 9: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인가?
그들은 『택한 백성』의 한 모형(模型)일 뿐이다.

(롬 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
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롬 10: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
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롬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이 되시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롬 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남은 자』 들이 있다.

(롬 1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롬 11: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에도
역시 택함을 받은 『남은 자』 들이 있다.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제12-15장)

구원받은 성도들은
『산 제사(祭祀)』
곧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예배(靈的禮拜)』 를 드리는 자들이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바라본다.

(롬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롬 13: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성도들의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롬 13: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롬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롬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도들은 마땅히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롬 13: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교회(성도)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문안하는 공동체이다.

(롬 14: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롬 14: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롬 15: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롬 16: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교회(공동체)를 뒤흔드는 사탄의 꾀계를 반드시 파하신다.

(롬 16: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롬 1: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롬 1: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롬 1: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롬 15: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롬 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롬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롬 16: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롬 16: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음성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